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루카 11,9-10)



〈친구의 청을 들어주는 사람〉, 에기노 바이너트(Egino Weinert), 독일

[제1독서] 창세 18,20-32

[제2독서] 콜로 2,12-14

[화답송] 시편 138(137),1과 2나.2ㄱㄴ과 3.6-7ㄱㄴ.7ㄷ-8

[복음 환호송]

(◎ 3ㄱ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알렐루야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 하셨나이다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복음] 루카 11,1-1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0] 구하시오 받으리라
-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 성체성가: [153] 오소서 주 예수여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1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 3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4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5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벼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벼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 6 내 벼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 7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 10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 11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 12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 13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성화 해설



〈친구의 청을 들어주는 사람〉, 에기노 바이너트(Egino Weinert)

현대의 뛰어난 성물 제작자인 에기노 바이너트는 성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고 있다. 그는 주로 칠보기법을 통하여 화려하면서도 정감이 가득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자 그는 친구에게 가서 빵과 음식을 꾸어달라고 청하였다. 그의 간절한 청을 듣고 친구는 먹을 것을 한아름 가지고 집밖으로 나오고 있다. <정용모 신부 / catholic.or.kr>

†묵상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아무 답도 없으신 하느님 때문에 절망하곤 합니다. 그런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든지 할 겁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분의 나라가 오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악에서의 구원을 청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니 주님의 기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무엇을 청하든지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 기도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저는 아버지를 귀찮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바라는 바를 아버지께 청합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무엇을 청하든 언제나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제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주님의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루카 11,2)

예루살렘 성전 동쪽 올리브산에는 예수님의 자취를 더듬고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는 기념 성당들이 곳곳에 있다. 그 중 하나가 올리브산 정상 부근에 있는 ‘주님의 기도 성당’이다. 이 성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곳에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일화는 마태오복음 6장 9-13절과 루카복음 11장 2-4절에 나온다. 주님의 기도 성당 지하에는 30명 남짓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동굴과 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위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셨다고 전해진다.



〈주님의 기도〉, 제임스 티소트

제임스 티소트(James Tissot, 1836-1902)가 1886-94년에 수채화로 그린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팔을 벌리며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다. 예루살렘 성전 위로 석양이 지는 것으로 보아 동쪽 올리브산의 위치를 정확히 그림에 반영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루카 11,2-4)

예수님의 흰옷은 거룩한 변모 때와 같이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다. 그분은 기도 중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앉아서 예수님을 따라 팔을 벌려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옷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지만, 어떤 제자들은 아직도 회색빛을 띠고 있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머리에 쓴 흰색 두건부터 하얗게 변모하는 제자들도 있다.

많은 이들이 똑같이 기도를 하여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모하지만 어떤 이는 반쯤 변모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도 변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건을 쓰지 않은 한 제자는 옷에 흰 줄이 크게 그려져 있어 그도 조금씩 예수님의 거룩함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치다 보면 조금씩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모할 것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복음 묵상



두드려라 ...

이것, 저것, 세상의 것에 다 기대를 걸어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끊임없이,
오직 주님께만 청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카 11:9)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부〉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리 교육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 “**사람을 죽이지 마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간결하고 명료한 형식으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성벽과도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가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은 ‘생명에 대한 경시’ 안에 요약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신문에서 읽거나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것처럼, 전쟁과 인간을 착취하는 조직에 의해, 피조물에 대한 남용과 쓰고 버리는 문화에 의해, 인간 존재를 기회포착의 계산 밑에 두는 모든 시스템에 의해 공격당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경시입니다. 말하자면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순된 접근법은, 다른 권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머니 태중에 있는 인간생명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남에 있어서 무고하고 힘없는 생명을 빼앗는 행동이 어떻게 치료적이고 문명적이고 또는 단순히 인간적일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생명을 “**빼앗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살자를 채용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인간을, 비록 힘없는 아이라 할 지라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살자를 채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폭력과 생명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사실, 다른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개인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생명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부모들은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진정

어린 친밀감과 연대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임신을 멈추라는 경솔한 조언을 받습니다. 곧, “**임신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 “**한 사람을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병든 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살아가고자 애쓰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모든 사람과 같습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남녀 모든 사람은 실제로, 자기 중심주의에서 자기 자신을 나오게 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취약함에 노출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랑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생명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자원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돈, 그리고 권력과 성공입니다. 이것들은 생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척도(기준)입니다.



진정하고 유일한 생명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척도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그 척도입니다.

사실,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계명의 긍정적 의미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바로 방금 전에 성경 봉독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상에서 배척받으시고 나약함과 가난과 고통을 받아들으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어떻게 대우받으셨는지에 따라(요한 13.1 참조),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모든 병든 아이와 모든 허약한 노인, 희망을 잃은 모든 이민자와 약하고 공격받은 모든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을 드러내 보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고 계시며(마태 25.34-46 참조),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 4면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명뿐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도 경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는 계명은 나 자신의 생명에도 해당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업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망치고 당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각종 중독으로 인해 당신 자신을 망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속임수에 따라 생명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각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과 이웃을 받아들여주세요. 하느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amante della vita)” 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The Fifth Commandment: DO NOT KILL
“Indifference kills”

Here is the official English language summary of the Pope’s catechesis at the General Audience on 17 October 2018. Pope Francis reflects on the Fifth Commandment “Do not kill”, and says that insult and contempt can kill as well.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our continuing catechesis on the Ten Commandments, we turn now to the fifth: “You shall not kill”, which reveals how precious human life is in God’s eyes; we are made in his image out of his infinite love for us. But we learn that there are other ways of “killing” a person: anger, insult, scorn and indifference towards others can kill, perhaps not their physical bodies, but rather the unseen spirit within them. Although the opposite of killing might seem to be *not killing*, that is only a first step towards loving. We need to do the opposite of what Cain did to Abel: *we are* each other’s keepers, protectors and guardians. For this we need Christ’s love and mercy. The commandment not to kill is a *call to love* and to mercy, a call to live according to the life of the Lord Jesus, who gave us life by rising to life; this life is the Father’s gift to each of us.

<http://www.vaticannews.va>

17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8, 2019

God Gives Us What We Need



〈오마리아 그림-바오로말 콘텐츠〉

In today’s Gospel reading, the disciples asked Jesus to teach them how to pray, so He taught them the

“Our Father”.

In the first part of the “Our Father” we give glory to God by praising Him, and in the second part we ask Him for the things we need. First we ask for our daily bread. This can be asking both for the things like food that our bodies need, and for the spiritual things as well, especially Holy Communion. Next we ask for forgiveness for our sins and for God to keep us away from temptation and evil.

Jesus said that if a father on earth would give his children the things they need, then God, Who is our Father in Heaven, will certainly give us what we need. All he wants us to do is show that we trust in Him by asking Him.

Make sure you say the “Our Father” every day to praise God our Father and ask Him for everything you need. <https://www.thekidsbulletin.com>

▶ ANNOUNCEMENT

Registration Service for SPC Sunday School

- **When:** 8/4-8/25(Sundays), 10am-11:20am, 12:40pm-1:30pm
- **Where:** Hasang Bldg. Office
- **Registration Fee:** \$80/student
- **Ques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 성가 특강 성가기도의 은혜



이종철 배난시오 신부(수원교구)의 성가 특강이 지난 7월 14일(일) 본당에서 있었다. “성가기도의 은혜”라는 주제로 1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특강에 본당 성가대와 일반 신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가 기도 의미와 은혜를 묵상하고 이종철 신부의 작품

세계를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알링턴 교구 성소 캠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알링턴 교구 성소국이 주최한 성소식별(사제/수도/결혼/독신) 여름 캠프가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남학생이 참여하는 퀴바디스 캠프는 7월 7일-7월 11일에, 여학생이 참가하는 피아트 캠프는 7월 14일-7월 18일에 4박 5일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성소 캠프에는 알링턴 교구의 남·여학생 각각 115명이 참가했고, 본당에서는 Jun Yoo와 Vincent Lee(퀴바디스 캠프), Ellina Yi(피아트 캠프) 총 세 명이 참가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성당에 모여 강두영 암브로시오 신부님의 축복기도와 격려를 받은 후 부모님들과 함께 캠프 장소인 메릴랜드주 에미츠버그의 Mount St. Mary 신학교로 떠났다.

캠프장에서는 성소 담당 아이센버그 신부님과 수사님들, 그리고 30여 명의 신학생들이 캠프 참가자들을 일일이 맞아 등록과 방 배정을 도와주었다. 방 배정 후 오후 4시에 마이클 주교님과 함께 모든 참가자들, 가족들은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강론 중 마이클 주교님은 캠프 참가자들에게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묵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4박 5일 동안 매일 아침 미사와 특강 그리고 오후에는 각종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 저녁에는 기도회와 묵상 등을 통해 각자의 성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성소 후원회 기사 제공)

○ 하상회 소식



하상회 월례 회의가 지난 21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이달 생일을 맞은 12명의 형제들을 축하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전했다. 이 날 7명의 회원들이 새로 가입하였으며 이들 중 5명은 본당 바둑 동호회도 동시에 가입해 큰 박수로 환영받았다. 이어서 원웅식(요셉), 이신규(테오도로) 형제가 ‘노인들에게 바둑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안나회 소식



지난 21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안나회 7월 월례회가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회원들은 5, 6, 7월에 생일을 맞은 21명의 자매들을 큰 박수로 축하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었다.

CCD
~ CCD ~
SUMMER
CAMP
8/2(Fri) - 8/4(Sun)

• Last day of
Camp Registration:
July 28(Sun),
from 8:45am-1pm
at the Parish Hall

1 2019 - 2020년도 사목 보고회

- 일시 : 7월 28일(일) 오후 1시, 성당(오후 12시 점심식사)
- 참석 대상 : 회장단, 사도회 임원, 재정위원, 구역봉사자 (소공동체), 단체장(신심 및 활동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CD, CYO) 교감, 하상 문화원 원장, 하상 방송 코디네이터, 하상 성인학교 교장, 하상 한국학교 교장/교감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2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세미나 (교육부 주관)

- 일시 : 7월 28일(일) 오전 11:30(A-1,2)
- 강사 : 정문기 윌리엄(DK Health VA)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3 복사단 모임

- 일시 : 7월 28일(일) 오후 1시(B-1,2)

4 바오로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28일(일) 오후 1시(A-1,2)

5 요한회 월례회의

- 요한회 월례회의가 7월 28일(일)에는 없습니다.

6 CCD 여름 캠프 신청

- 대상 : 3학년 - 7학년
- 일정 : 8월 2일(금) - 8월 4일(일)
- 장소 : Pine Creek Retreat Centre, Gore, VA
- 신청 : 7월 28일까지,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오전 8:45 - 오후 1시)
- 문의 : 이태현 디렉터 (703)819-5815

7 병자 영성체

- 일시 : 8월 2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형제 (703)264-0050

8 성체강복

- 일시 : 매월 첫째 금요일(8월 2일) 오후 7:30 미사 후 많이 참석하시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8월 4일(일) 오전 11:30(B-1,2)

10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8월 4일(일) 오후 1시(B-1)

11 2019 - 2020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 학사 일정 : 2019년 9월 7일 - 2020년 5월 9일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시)
- 입학 대상 : 유치부(K) - 12학년
- 모집 인원 : 선착순 180명
- 학비 : 첫째 자녀 \$490, 둘째 자녀 \$450, 셋째 자녀 \$400
- 등록 : 하상관(10시 미사 후, 8월 4일 - 8월 25일까지) 우편접수 가능(성당 웹사이트 참조)
- 문의 : 교무실 (703)968-3070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12 2019년 이나시오 영성 8박 9일 침묵 피정 (동중부 CLC 개최)

- 일정 : 8월 9일(금) - 8월 17일(토), 선착순 30명
- 장소 : 로올라 피정의 집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20664
- 신청 및 문의 : 임윤호 요한 (703)201-9506
yoonho_lim@yahoo.com

13 바쁘리치안회 첫 모임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내 믿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바쁘리치안회는 신자로서 갖는 고민들을 해결하며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주임신부님과 함께 하는 바쁘리치안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8월 25일(일) 오후 2시, 친교실
- 주제 : 목주기도
-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교우분들
-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304-2129

•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

복음화 지향: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인 가정
가정이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언제나 더욱 '참된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www.masstimes.org**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17주간: 시편 107-114, 2 코린 6**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1일(목) 오후 5:00-6:00
8월 2일(금) 저녁 8:00-9:00
8월 4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14): 최초의 순례가 시작된 곳 오버에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7월 21일(연중 제16주일)

주일헌금 \$7,325.00
교무금 \$9,365.00
교무금(크레딧카드) \$4,180.00
특별헌금 \$100.00
2차헌금 \$0.00
합계 \$20,97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윤하(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선(젬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기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 **근복무자**
김도윤(유지니),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길(안토니오),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현(대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제임스 리(효찬), 안범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28일(일)	연중 제17주일	사목 보고회(오후 1시, 성당),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바오로 모임(오후 1시, A-1,2), 요한회 모임 없음
29일(월)	성녀 마르타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30일(화)	연중 제17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31일(수)	성 이나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8월 1일(목)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교리교사 졸업식 및 축하파티 (오후 7시, 성당)
2일(금)	연중 제17주간	병자 영성체, 평일미사(오후 7:30), 성체강복(미사 후), CCD 여름 캠프
3일(토)	연중 제17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파티마 첫 토요일미사 (오후 6:15, 성당)
8월 4일(일)	연중 제18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암 보험·메디케어 장기간호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819-0360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알렉산드리아 병원 근처 703-679-8959	Commercial 김준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